

‘증시 친화·반도체 호황’ 날개… ‘오천피’ 꿈 아닌 현실로

코스피 4000 시대

① 달라진 K-증시

李 정부, 자본시장 친화정책 시행
AI산업 경쟁 치열… 반도체 수혜
“내년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

일각선 디커플링 우려 목소리도
“실질적인 기업 실적개선 동반돼야”

“사천피(코스피 4000)라니! K-팝, K-푸드에 K-증시다!”, “이대로 쭉 5000까지 가자!” 코스피가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우려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7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뚫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증시 낙관론자들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등으로 꿈의 ‘사천피’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 3000시대가 펼쳐진 2021년 ‘행복’보다 이듬해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온다. 2022년 코스피는 2988.77로 출발했다가 고물가와 경제불안,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를 증시가 얼룩지면서 꾸준히 하락해 연말 2236.4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올해도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만 거꾸로 가는 ‘디커플링(괴리)’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서 ‘피크(정점)가 오래갈지 의문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증시 낙관론자들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선긋기를 하고 있다. 다만,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한 밸류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 증시로 향하는 돈

2022년과 2025년의 가장 큰 차이는 시중에 ‘돈’이 풀릴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기준금리를 연 3.25%까지 올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며, 2.50%까지 낮췄다. 경제 성장률 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57%(101.24포인트) 오른 4042.8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공동취재단

락세가 심상치 않자 돈이 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2년 말까지만 해도 3.5%~3.7%대에서 움직였으나 지금은 2.5%대로 내려갔다.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이중 상당액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이동)’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방향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도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0조168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제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조42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정부가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구조적 리레이팅 의지를 보인점도 외국인들 불러 모은다. 이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을 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등 상장사에는 ‘채찍’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가 올리기엔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K컬처 산업 성장세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향후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버딘 인베스트먼트, 픽테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전망도 장밋빛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호황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되며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 증권가 ‘오천피’ 전망 엇갈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유동성 환상이 아니라 산업 양극화가 낳은 구조적 고평가의 정당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연말 코스피 목표 밴드를 3600~4050포인트로 상향했다. 대신증권의 연말 코스피 전망 밴드는 3500~

4100, KB증권은 3700~4250을 제시했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 역시 내년 코스피 지수 상단을 4200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스피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미국 관세의 표적이 된 철강, 반도체,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등의 산업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증시가 삼천피 시대를 발판 삼아

“양적 상승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혁신 필요”

≫ 1면 ‘코스피 4000시대…’서 계속

정부의 증시 부양 노력도 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낮은 주주환원 수준 제고, 기업(산업)혁신 역량 강화 등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까. 미답의 5000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주가가 여기서 점프하듯 뚝박질하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과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달라지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한국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0.8~0.9%, 내년은 1.6~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한국 증시가 활인받았던 이유는 이익의 불안정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이었다”며 “이익의 변동성이 줄고,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2021년과 달리 저평가 구간에서 회복 중이라 고무적이지만, 코스피 5000은 실적 없는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어려운 목표”라며 “5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2000으로 무너지지 않는 증시 구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 등 K-반도체 집중 매수… “주가 상승세 이어질 것”

외국인·기관 중심 순매수 증가 증권사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이재용 회장이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은 27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삼성전자 주당 10만원)’가 됐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고지’를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최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보다 3200원(3.24%) 상승한 10만 2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1일부터 이날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5조1947억원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금융투자·투신·연기금·사모 등) 역시 9835조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갈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은 기간 6조133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들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을 반영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

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2분기에 바닥을 찍은 뒤, 3분기에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주가가치 제고 노력도 주가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주가 방어 및 책임경영의 지를 반영한 것이다. 덕분에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총 504만 985명으로 늘었다. 이탈리아 가속했던 1년 전(424만 7611명)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수는 80만명 증가해 500만 주주 타이틀을 회복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

능(AI) 산업 발달 및 일반 서버 D램(DRAM) 교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잇따른 수주 및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쟁력 회복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8월에는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로 추정되는 칩 공급 계약도 맺었다. 또 7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오픈AI의 초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한다. 재계에선 7월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이 회장이 글로벌 재계·IT 거물들과 만나며 이룬 광폭 행보의 성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엔비디아와 HBM3E(5세대) 공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6세대) 공급을 위한 인종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최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 1000원,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가 ‘겨울이 곧 닥친다’(지난해 9월), ‘빙산이 온다’(올 4월)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를 경고해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다. 현재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KB증권은 ‘13만 전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11만 1000원→12만 7000원), 한국투자증권(9만 5000원→12만 원), NH투자증권(9만 4000원→11만 5000원), 키움증권(10만 5000원→12만 원), 하나증권(9만 5000원→11만 5000원) 등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

/허정윤 기자